

# 노자와 신디 크로포드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요** 즘 장안에서는 EBS TV에서 방영되는 김용옥 교수의 노자 강의가 으뜸가는 화제이다. 정보시대 혹은 지식사회라는 21세기 벽두에 노자라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란 말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 번쯤 그의 강의를 시청해보기 바란다. 누구나 그의 열강에 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강의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노자나 장자와 같은 동양의 고전들이 지금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하는 깨달음이다. 우리 나라에 4년제 대학의 교수만 5만 명이 넘고, 전세계에 사회학박사가 3만 명이 훨씬 넘으며, 철학 분야만 해도 매년 수백의 논문과 책이 출판되고 있건만 아직도 2천5백년 전의 고전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니 소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다소 허무한 느낌도 든다.

둘째는 정보는 해석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인터넷에 한문과 영문으로 전문이 올라와 있지만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다. 노자의 사상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김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해석을 통해 살아난다. 물론 방청객을 사로잡는 아슬아슬한 음담과 직설적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는 그의 배우적 자질도 한 몫 거두고 있기는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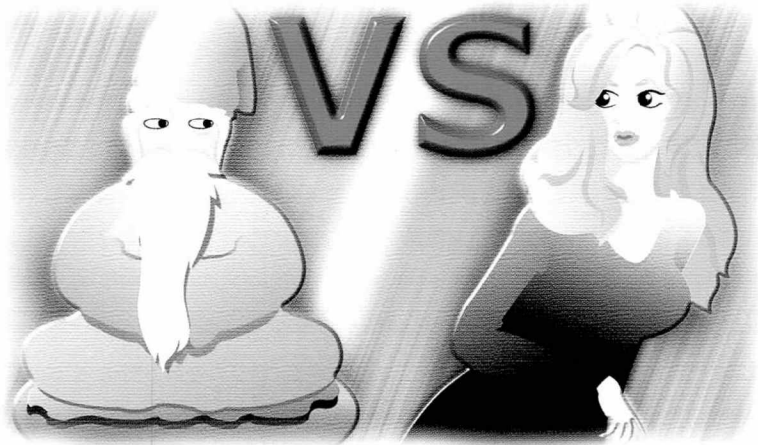
「도덕경」은 5천 개의 한자(漢字)로 이루어져 있으니 약 40K 비트에 불과하다. 모델 신디 크로포드 사진 한 장의 정보량만도 그것의 25배가 넘으니 크기로만 따지면 정말 보잘 것 없다.

그런데도 철학자들은 「도덕경」을 연구하고 시청자들은 「도덕경」 강의에 숨을 죽인다. 물론 수많은 네티즌들은 신디 크로포드의 사진을 데스크톱 윌페이퍼로 사용하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음미할지 의문이다.

정보시대는 「도덕경」과 신디 크로포드의 사진을 동일한 부호로 처리하면서 가능했다. 정보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된 샤논(Shannon)과 위버(Weaver)의 수학적 정보이론은 정보의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1과 0이라는 디지털 부호(code)의 세계에서 정보의 질적 차이는 사라지고 양적 차이만 남는다. 사실 그래야만 정보학이 가능하다. 정보학의 임무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보산업 종사자들이 정보의 질적 구분에 집착하면 정보기술과 정보서비스 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보시대의 딜레마는 정보의 양적 인식 덕분에 정보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여전히 정보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사실에 있다.

정보산업 종사자들은 부호로서의 정보 처리에 관심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메시지로써의 정보 획득에 관심이 있다. 부호는 의미를 탈각한 상태이지만 메시지는 의미와 떨어질 수 없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많은 1과 0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



지난 세기 정보혁명의 시작이 부호로서의 정보 개념에 의존했다면, 금세기에 목격하게 될 정보혁명의 성숙은 메시지로써의 정보 개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가가 정보산업의 과제가 된다. 정보기술은 사용자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대응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마음은 부호가 아니라 메시지의 세계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타이핑한 단어가 포함된 수많은 문서를 기계적으로 나열해 주는 인터넷 검색엔진이 아니라 사용자가 타이핑한 단어를 힌트로 사용자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가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주는 영리한 검색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이기보다 지식의 시대이다. 경영정보론에서는 데이터가 가공되어 유용한 모습을 갖춘 것을 정보(즉, 메시지로써의 정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유용한가의 판단은 정보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은 이론이 제공해 준다. 이론이란 세계가 움직이는 이치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다. 정보가 이론에 의해 분석, 종합, 그리고 해석되면 지식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이미 정보기술이 정보관리를 넘어 지식관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들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정보관리에서 지식관리로 발전하면서 정보생활에 있어 중대한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정보와 지식은 질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프리즈 매클럽(Fritz Machlup)에 의하면, 정보는 단순히 들어서 얻지만(by being told), 지식은 생각함으로써만(by thinking) 획득할 수 있다. 두뇌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은 적극적인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 교수의 노자 강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강의를 하는 김 교수는 노자의 사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겠으나,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강의는 노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로만 남게 될 것이다.

어떤 독자는 정보를 많이 가지면 사고(思考)도 풍부해지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idea)을 가지고 생각한다. 예컨대 2천5백년 전의 노자나 공자는 요즘 평균적인 대학생보다도 세상에 대한 정보를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리포트는 담당교수 아니면 누구도 읽지 않는 반면 「도덕경」이나 「논어」는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한 개인이 보유한 정보의 양과 창조적 사고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리 값비싼 정보나 정보기술도 '생각하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용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은 know-who도, know-how도, know-where도 아닌 사고력이 될 것이다. 점차 정보수집은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몫만이 인간에게 남겨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정보시대의 정보과잉은 의미의 실종으로 귀결되리라 예측했다. 부호의 과잉 생산으로 부호가 현실세계의 무엇에 대응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부호의 의미를 따지려 들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호의 증가가 반드시 의미의 공황을 초래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정보수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인간의 사고능력도 함께 향상되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 다소 염려스럽기는 하다. 앞으로 정부도, 기업도, 가정도 창조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